

불법 폐기물 처리 본격화

익산시, 낭산면 석산 복구지서 '행정대집행' 개시

익산시가 낭산면 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폐기물 처리가 본격화되면 침출수 유출 등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2일 낭산면 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이적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단기간에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

또한 익산시는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 직후 '환경 개선'을 익산시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환경부의 개입을 이끌어내며, 환경부 익산시 공동으로 불법 매립 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4차 산업혁명, 지역·그리고 대학: 원광 100년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개교 7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14일 교내 프라임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원광대, 개교 75주년 심포지엄 개최

'4차 산업혁명, 지역·대학: 원광 100년을 향한 도약' 주제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4차 산업혁명, 지역 그리고 대학: 원광 100년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개교 7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14일 교내 프라임 콘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축사에 나선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장이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과 대학이 연계한 지역 상생 발전을 강조한다.

특히 유기홍 위원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질적 도약과 동반성장도 강조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 '원광대학교' 채널로 생중계되며, 박맹수 총장의 개회사와 유기홍 교육위원장 축사 및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직업훈련, 취·창업 발굴 지원 국비 4억 2천만원 확보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취·창업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청년특화 분야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사업은 '군산 대형수송·건설기계 정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군산 상용차·건설기계 정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목표로 관내 고등학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상용차·건설기계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지역 청년이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 자격 취득과정운영 일자리플랫폼 구성이다.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지역 청년이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 자격 취득과정운영 일자리플랫폼 구성이다.

면접 컨설팅, 동행면접 등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고용프로그램과 자동차 정비·건설기계 정비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군산=한경봉기자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54명의 청년 취업을 목표로 하며, 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격취득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이내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472-2815),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450-1308), 시 일자리정책과(☎454-423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K모 도의원 제주도 농지투기 의혹 파문

익산 K모 도의원이 지인과 함께 2014년 제주도 한경면 일대 논밭 3필지를 지인과 함께 구입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임대해 현지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논밭을 구입한 사업자가 정치인으로 변신해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기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자 한국일보 "농지에 빠진 공복들-투기꾼 먹이감 된 제주 농지 임차료 3배 치솟자 쫓겨나는 농민들"이란 보도에서 "K모 전북도의원 이 2014년 매입한 제주도 한경면 일대 밭에는 수확되지 못한 월동 무가 방치된 채 기장이 심겨져 있었다"며 "K모 도의원은 매입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마늘과 감자를 심겠다고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상태"라고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이에 취재에 들어가자 K모 도의원은 "2014년도 도내에서 사업할 때, '노후가 되면 제주도에 가서 살자'며 지인과 함께 제주도 한경면 일대 논밭 3필지를 구입했"으며 "실제 지인은 이사를 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자 "그 때 잘못 판단했다. 매우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의 답변을 했다.

반면에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도서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군산시가 군산시립도서관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는 최근 시립도서관 주변 지역인 수송동과 나운동 주민들에 대한 인구의 급증으로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립도서관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발급기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교육 ▲국제 ▲건강보험 등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서류발급으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고영만 기자

정현을 시장,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 강력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 방문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가 요청한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 등 2개 사업이다.

미래에 새만금 신항을 통한 물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원주산단 자체 물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